

익산시 “이제는 착한소비”

정현을 시장, 카드수수료 전가행위 등 강력 단속주문 농가 일손부족 따른 계절 근로자 수급대책 마련 촉구

정현을 익산시장이 11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제는 착한소비운동을 적극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착한소비운동을 저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85% 정도 완료됐다.”면서 “전 직원이 동참해 익산시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한 덕분에 지역상권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이로움 카드와 기프트카드 사용 시 가격인상행위, 부가세, 카드수수

료 전가행위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착한소비운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영농철 일손부족에 따른 계절근로자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하면서 농가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농협 민간과 함께 농업인력 지원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수급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1회 방문으로 두 가지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오랜 숙원인 신청사 건립사업이 드디어 설계공모를 끝마치고 당선작이 확정되었다.”며 “앞으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익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착한소비운동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을 도울 수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소비를 말한다.

/익산=정왕원 기자



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황성덕)이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덕덕프로젝트 '어르신 덕분에, 후원자 덕분에, 2020년 찾아가는 어르신 경로잔치'를 열어 덕덕박스(카네이션과 떡)를 전달했다.

어르신들 모처럼 '웃음꽃' 피우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어르신 경로잔치' 성료

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황성덕)이 어버이날을 맞아 미성동, 소룡동 나운3동, 육서면 등에 거주하는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덕덕프로젝트 '어르신 덕분에, 후원자 덕분에, 2020년 찾아가는 어르신 경로잔치'를 열어 덕덕박스(카네이션과 떡)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관은 해마다 어르신 경로잔치를 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내 집단행사 불가 지침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경로잔치를 변경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자 행사를 기획했다. 한편, (주)카길에그리피유라

군산공장, (유)백산목재, (유)전량, (유)우영플랫폼, 소룡의원 양평해장국(미용점), 금강인쇄기획, 박천수한의원, 이근수 치과, 남경현의원, 고래포차, 박준홍 조일영, 이영로, 최원호, 양찬진씨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후원해 주었다.

황성덕 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닌 어려운 지역 경기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경로잔치를 열 수 있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원광대 · 남북하나재단 '손 맞잡다'

북한이탈주민 의료인양성 협력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이 북한이탈주민 의료인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 의료인 양성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최근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서 열렸으며, 박맹수 총장과 정인성 이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의사국가고시 준비를 하는데 협력해 왔으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을 열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상호 협력 사업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특히 원광대는 국가시험 준비 실습장 제공 등 교육을 지원하고, 전공의 과정 연계 및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맹수 총장과 정인성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양성을 위해 상호 간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이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양성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85%지급... “빨리 찾아가세요”

익산시가 코로나19 재난 장기화에 따른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시작해 지난 8일까지 28만4,528명 중 24만2,934명에게 85%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9일 간 최단기간에 무기명 기프트카드에 시민 1인당 10만원씩 충전하여 총 242억원을 지급한 셈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아직 미신청한 시민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자중 미수령자는 익산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지급 받으면 되고, 방문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다.

신청 5부제도 해제한 만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나 방문 시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고, 대리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면 된다. 이미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은 시민들은 익산시 관내 익산다이로움 기프트카드 가맹점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지 충전된 한도금액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일부 유흥업소, 분사직영 중대형 브랜드 사업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만약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카드 잔액은 환불이 불가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가 최초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직 미신청한 시민들은 하루속히 카드를 지급 받아서 착한소비로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전북 첫 '감사위원회' 도입

익산시, 감사의 독립성 · 공정성 · 전문성 강화기대

익산시가 전북 최초로 합제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본격 도입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사의 독립성 · 공정성 · 전문성 강화를 위해 5월 중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시장 직속 별도 기구로 위원장은 개방형으로 위촉하며 위원장 포함 3 ~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감사계획 수립,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해 심의 · 의결하는 등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충남 아산시와 대전 서구청에 이어 세 번째로, 위원들의 합의에 따른 감사로 절차상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공정한 합리적인 감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시장의 감사 권한 침해 우려와 같은 행간의 부정적 견해도 불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시장 구현이 더 강조되는 만큼 감사위원회 도입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합라 장점마을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의 감사참여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소할수 있는 적절한 방침이기도 하다.

감사위원회는 하반기 조례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식 출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열린 감사 및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청렴도 향상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착한 임대료 운동' 임대인 참여 열기 '후끈'

'코로나19' 시대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군산지역의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 임대인들의 참여 열기로 활기를 띠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에 지난 5월 까지 70명의 임대인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상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10~60%)를 감면 6억7,500여 만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거뒀다. 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자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상가임대료를 건물주들이 자율적으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 운동'을 지난 3월부터 펼치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분위기 형성과 고충분담을 위해 진행 중인 임대료 자율 인하 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는 임대료 인하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남몰래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훈기자

크리에이터 1기 양성과정 정현을 시장 개강식 참여

정현을 익산시장은 11일 도시재생사업 '역사문화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왕도미래유산센터에서 열린 '꿈을 만드는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1기' 개강식에 참석해 50여명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개강을 축하했다.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은 창작 크리에이터, 유튜브크리에이터, 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과정별 20여명이 참여하고 중복지수도 가능하고, 특히 이반교육에 참여하는 전문 강사진들은 창작, 유튜브, 로컬창업 분야에서 국내 수준급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100년의 철도역사가 살아 숨쉬고 7080 추억의 스토리텔링 가득한 익산 원도심에서 '꿈'을 찾아내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참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참여되어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익산=정왕원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